2025. 6. 16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6월 15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

(GPR 탐사 관련)

재난안전예방과

(서울안전누리 시스템 관련)

도로관리과장	박영서	02-2133-8150
지하안전1팀장	김영호	02-2133-8180
재난안전예방과장	정형철	02-2133-8515
재난예방팀장	안재동	02-2133-8517
누리집	<u>safecity.seoul.go.kr</u> (상단 '안전정보지도'→ '지반침하')	

사진없음 □ 사진있음 ■ 쪽수 : 5쪽

지반침하 안전정보 누구나 손쉽게 확인! 서울시. 'GPR 탐사지도' 공개

- '서울안전누리' 통해 특별점검 **350**km(364곳) 점검 결과 공개··· 발견된 공동 복구 완료
- 지도 위 '탐사구간' 선택. 조사 기간 연장 등 정보… 발견된 공동은 조치 사항 등도 제공
- 지반침하 위치 사진 등 상세 정보, 주소 검색 서비스도 예정… 자치구 탐사 결과도 공개
- □ 서울시는 지반침하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PR(지표투과 레이더·Ground Penetrating Radar) 탐사 구간과 조치 결과를 'GPR 탐사지도'로 공개한다고 밝혔다. 탐사지도는 '서울안전누리' (safecity.seoul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□ 또 6월 말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지반침하가 발생한 위치가 지도에 표시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 시는 또 주소 검색으로 GPR 탐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.

<'GPR 탐사지도'로 탐사여부 등 정보 확인… 올 1~5월 350km 구간 탐사 결과 1차 제공>

- □ 시는 지난 3월 명일동 지반침하 이후 서울안전누리 '안전자료실'에 게 시글 형태로 GPR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해 왔으나 지역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'GPR 탐사지도'를 신규 추가하고, 지도에 서 GPR 탐사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.
 - 지도를 통해 누구나 쉽게 관심 지역 GPR 탐사 및 지하 공동(空洞·빈 공간) 발생 여부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.

<GPR 탐사지도> 보기

'서울안전누리'→ '자주 찾는 정보' 또는 상단 '안전정보지도'→ 지반침하→ GPR 탐사지도

- □ GPR 탐사한 구간은 지도에 선으로 표시되고, 해당 선을 선택하면 조사 기간·연장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 탐사 결과, 공동이 발견되지 않은 구간은 파란색, 발견된 구간은 보라색으로 표시된다. 발견된 공동은 상세 위치와 규모, 조치 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다.
- 'GPR 탐사지도'는 시가 올해 1~5월 초 350km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GPR 특별점검 결과를 1차로 제공한다.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점검이 필요한 ▲철도 공사장 5곳(9호선4단계·동북선·영동대로·신안산선·GTX-A) ▲자치구 요청 50곳 ▲굴착공사장 309곳의 탐사 결과가 포함됐다.
 - 1차 GPR 탐사가 완료된 지역도 정기적으로 재탐사하고, 점검 결과는 주 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.
- □ 시는 특별점검을 통해 사전 발견한 지하 공동 총 63개에 대한 긴급 복 구를 완료했다.

○ 철도 공사장 33개(신안산선 구간 32개, 동북선 구간 1개), 굴착공사장에 서 12개, 자치구 요청 지역에서 18개의 지하 공동을 조치했다.

<지반침하 위치·사진 등 상세 정보, 주소 검색 서비스도 예정… 자치구 탐사 결과도 공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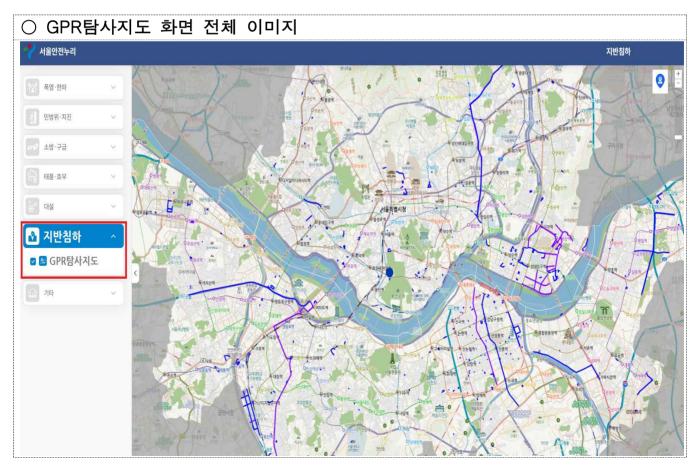
- □ 아울러 시민 안전 체감도 및 지하안전 관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6월 말부터는 지도에서 지반침하 지점을 선택하면 발생 일자, 위치, 규모, 현장 사진 등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.
- □ 또 지도에서 '주소 검색'으로 GPR 탐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.
 - 'GPR 탐사지도' 상단에 주소 검색창을 추가,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GPR 탐사 여부·공동 발생 유무를 알려주는 주소 검색 기능은 7월 중 제공된다.
- □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주도하는 GPR 탐사와는 별개로 자치구 차원 GPR 탐사를 강화하고 결과도 'GPR 탐사지도'에 표출할 계획이다. 자치구가 자체 발굴한 대상지에 대해 시·구 1:1 매칭으로 점검 비용을 부담할 예정으로, 이를 위해 총 15억 원의 시비를 지원한다.
- □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"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하 안전을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수 있는 GPR 탐사 정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"며 "촘촘한 GPR 탐사로 지반침하를 예방할 뿐 아니라 지하 굴착공사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

붙임 서울안전누리 내 'GPR 탐사지도' 정보공개

□ 'GPR탐사지도' 메뉴 위치



□ 'GPR탐사지도' 전체 이미지



] 'GPR탐사지도' 공동 확인 방법

① 공동 없는 위치(확인)





② 공동 있는 위치(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)



